

전주 배 · 무주 사과

온라인에서 만나요

전북농협은 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오는 19일 오전 11시부터 네이버 쇼핑을 통해 라이브 커머스 생방송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오는 19일 오전 11시부터 네이버 쇼핑을 통해 라이브 커머스 생방송으로 '무주 반딧불사과'와 '전주 신고배'를 특별 판매한다.

이날 방송은 무주군조합공동사업법인 무주농협, 구원농협, 전주완예농협이 협력해 맛과 품질 좋은 우리농산물을 홍보하고 소비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설맞이 선물용 농산물을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주문 완료된 제품은 익일부터 무료로 택배 발송될 예정이다.

방송시간 동안 시중가격 대비 28% 할인된 가격으로 500박스 한정 무료 배송 · 판매하며 1+1 이벤트도 진행된다.

정재호 본부장은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라이브 커머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전북농협은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소비자의 소비 패턴 변화에 발맞춰 라이브 커머스 등의 온라인 판매를 강화해 지역 우수농산물을 전국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판매를 확대해 농업소득 증대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설맞이 라이브커머스 통해 할인 판매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오는 19일 오전 11시부터 네이버 쇼핑을 통해 라이브 커머스 생방송으로 '무주 반딧불사과'와 '전주 신고배'를 특별 판매한다.

이날 방송은 무주군조합공동사업법인 무주농협, 구원농협, 전주완예농협이 협력해 맛과 품질 좋은 우리농산물을 홍보하고 소비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설맞이 선물용 농산물을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주문 완료된 제품은 익일부터 무료로 택배 발송될 예정이다.

방송시간 동안 시중가격 대비 28% 할인된 가격으로 500박스 한정 무료

배송 · 판매하며 1+1 이벤트도 진행된다.

정재호 본부장은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라이브 커머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전북농협은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소비자의 소비 패턴 변화에 발맞춰 라이브 커머스 등의 온라인 판매를 강화해 지역 우수농산물을 전국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판매를 확대해 농업소득 증대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중기 중 소규모일수록 설 명절 자금사정 곤란

원인으로 '판매 · 매출부진' 이 68.3%로 가장 많아

설 상여금 지급예정 응답 중기는 37.6%에 불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8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자금사정이 '곤란하다' 응답이 26.0%로 '원활하다'는 응답 20.4%에 비해 다소 높았지만, 지난해 설 자금 수요조사('곤란하다' 38.9%)에 비해서는 자금사정이 나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규모별로는 매출액과 종사자수가 적을수록 자금사정 '곤란하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매출액 10억원 미만(48.7%)과 종사자수 10명 미만(38.1%) 기업이 타 규모에 비해 '곤란하다'는 응답이 눈에 띄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기업(14.7%)보다 내수기업(27.9%)에서 자금사정이 더 곤란하다

고 응답했다.

자금사정 곤란원인으로는 ▲판매 · 매출부진(68.3%) ▲원 · 부자재 가격 상승(56.3%) ▲인건비 상승(31.3%) ▲판매대금 회수 지연(10.6%) 순으로 응답했고, 자금사정 곤란과 관련해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5.6%에 달했다.

또한 중소기업은 올해 설에 평균 2억 7,150만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이는 지난해 설(평균 2억 1,490만원) 대비 약 5,66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필요한 설 자금 중 부족한 자금 확보계획(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납품대금 조기회수(50.3%) ▲금융기관 차입(30.2%) ▲결재연기(21.1%)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대책없음' 응답이 21.1%로 지난해 설(10.4%)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희 기자



한국식품연구원원은 임인년 설 명절을 맞이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날 차례술 빚기 행사를 18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식품연, 설 차례술 빚기 행사 온라인 개최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형희, 이하 '식품연')은 임인년 설 명절을 맞이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날 차례술 빚기 행사를 18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식품연은 설날을 맞이해 차례상에 올리는 명절 술을 후손들이 직접 빚어 올릴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설날 차례술 빚기 체험 키트'를 제작, 온라인으로 함께 만들어보는 차례술 빚기 행사를 18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코로나 시대에 맞춰 온라인으로 진행된 본 차례술 빚기 체험행사는 선착순으로 참가 신청을 받은 지역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술빚기에 앞서 우리술에 대한 간단한 강의가

서식지 보전 훼손지 복원 최선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 공원 내 사유지 매수 추진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 소장 윤명수는 국립공원 내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 매수)으로 오는 2월 4일까지 토지 매수 신청서를 접수받겠다고 밝혔다.

핵심지역보전사업은 자연생태계 보전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국립공원 내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지리산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토지매수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제출하면 되며, 국립공원 측은 신청받은 매수 대상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평가한 뒤 매수 대상지로 확정되면 감정평가와 소유주 협의를 통해 토지를 매수하게 된다.

전북사무소 심음식 자원보전과장은 "사유지 매수를 통해 서식지 보전과 훼손지 복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많은 소유자의 신청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스마트공장 고도화 1단계 국비 최대 2억원

전북중기청, 구축 참여 희망 도내 기업 모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전라북도,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해 '2022년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 · 중견 제조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도입기업은 스마트화사업 목표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게 된다. 총 사업비(국비지원 최대한도 내)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기초단계 최대 5,000만원, 고도화 단계는 최대 2억원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전북도는 도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사업비

중 15%의 도비를 별도로 지원함으로써 기업부담을 추가로 경감해주고 있으며, 작년까지는 도비를 스마트공장 도입 최종평가에서 성공판정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국비와 마찬가지로 선정된 기업과 협약시 지원하게 된다.

현재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지원사업은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보급을 목표로, 작년까지 전국 2만 5,039개, 전북지역 762개(정부 · 민간 포함)의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의 경우 사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도내 제조기업들의 스마트 공장 보급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그동안 조성된 제조혁신 기반 위에서 스마트공장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4차산업혁명의 흐름 속, 스마트공장 구축은 미래 제조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조건이었다"며 "이제 발맞춰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계 사업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관련 공고문과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또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스마트공장 1번가(1st.smart-factory.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달 22일까지 스마트공장 1번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북지역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의 실무적인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스마트제조혁신센터(063-832-6049, 6051, 6053)로 연락하면 된다.

/최대희 기자

축산농장 '신발 소독조' 올바르게 소독하려면?

소독액 2~3일 주기로 교체... 소독조에선 장화 신고 제자리걸음 5회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축산농장에 설치된 신발 소독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가족 질병 병원체 등 오염균이 축사로 유입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을 18일 당부했다.

신발 소독조는 축사로 진입하는 모든 출입구에 설치돼 오염균을 막는 역할을 한다. 작업자는 축사로 들어가기 전 내부 장화로 갈아 신고 신발 소독조에서 장화를 소독해야 하며, 소독 중에 작업자는 신발 소독조에 장화를 담고 제자리에 서 걸으면서 장화가 소독액에 충분히 잠기게 해 오염균을 제거한다. 이처럼 장화를 소독하기 전과 소독하고 난 후의 대장균 검출률을 분석한 결과, 오염된 장화를 한번 담았다 났을 경우에는 7.4%의 대장균이 검출됐다.

반면 장화를 담고 제자리걸음을 5회 실시한 후 뺐을 때는 대장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장화가 분변 등 유기물로 오



염된 경우에는 미리 물로 깨끗이 씻어 낸 다음 신발 소독조에 담아야 한다. 소독과정에서 신발 소독조의 소독액이 유기물에 오염되면 소독 효과가 낮아져 소독액이 오염되면 즉시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발 소독조의 소독 효과를 높이려면 소독액의 희석비율과 교체 주기 등을 알맞게 관리해야 하고 소독제를 희석할 때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적정 비율을 잘 지켜야 한다.

45도(C)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는 소독 효과가 떨어지므로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철에는 희석비율을 제

품 설명서에 기재된 농도 기준으로 맞춘다. 소독제 희석비율을 편리하게 맞추려면 신발 소독조 옆면에 물의 양을 미리 표시해 농도를 맞추고, 소독액은 2~3일 간격으로 바꿔주며, 희석된 소독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두지 말고 교체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희석해서 사용한다.

디디팜농장 이창민 대표(경기도 연천군)는 "신발 소독조 관리와 농장 소독 소독력을 잘 지켜 질병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허태영 가축질병방역과장은 "신발 소독조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농장에서는 신발 소독조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오염균의 축사 유입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지역인재 맞춤형 취업교육으로 '거둬'

LX · 공공기관 · 도내 대학 참여 전북혁신캠퍼스 공간정보과정

LX한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 LX공사)가 디지털 대전환을 계층에 따른 전북혁신캠퍼스 공간정보과정이 수요자 맞춤형 취업 교육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전북혁신캠퍼스는 LX한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과 전북지역 5개 대학(전북대, 전주대, 군산대, 원광대, 우석대)이 참여하는 지역인재육성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제주지역 인재도 합류했다.

이에 따라 전북 · 제주지역 인재 39명은 LX공사 입사에 필요한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이론교육, CAD실습, 드론 코딩 수업과 사업 아이디어 발표회까지 참여했다. 그 결과 여학생들의 안전 전문가, 건물체제 · 타널공사를 위한 안전발과 관리, 공유키보드 안전주행 등 사회문제 해결방안이 발굴됐으며,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발표회에서 공유 키보드의 문제점 ·



한국토정보공사(LX)는 전북혁신캠퍼스 공간정보과정이 수요자 맞춤형 취업 교육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해결방안을 제시한 정민혁(전북대 3학년)씨는 "QR코드를 활용한 공유 키보드의 주차단 · 안전 확보 방안을 제시하면서 공간정보가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데이터란 걸 알게 됐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어떻게 취업을 준비해야 할지 감을 잡았다"고 밝혔다.

LX공사 김기승 부사장은 "올해는 제주도까지 참여해 지역인재 육성에 더

도, 사회적경제 설맞이 특별할인전

전북도는 설을 맞아 도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100여개소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참여하는 '전북도 사회적경제 설맞이 특별할인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생생나눔'과 우체국 소풍물 전북

사회적경제기업 브랜드관'에서 진행된다.

'생생나눔'에서는 오는 29일까지 50여개사 330종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들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예약판매 및 택배 배송도 진행한다.

우체국 소풍물 '전북 사회적경제기업 브랜드관'에서는 오는 25일까지 육류, 과일, 지역특산물 등 명절 선물 세트들 15%에서 최대 30%까지 할인한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할인 기획전을 통해 도민들이 부담 없는 설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효상 기자